

도시문화와 공동체 의식의 영향 관계

An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Urban Culture and Community Spirit

김 동 윤 | Kim, Dong-Yoon

정회원, 안양대학교 스마트도시공간연구소 교수

Abstract

With regard to urban culture this study aims to essential understanding and systematic approach to the culture. The 「2012 Seoul Survey」 report has been used to find out causality among the related variables. In the first place 'satisfaction of cultural condition' was operationally selected as a dependent variable for regression.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the third factors for ceteris paribus effect correlation analysis was previously done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and all other variables respectively, which resulted in two groups of variables: group (1) - 2 variables of very significant correlations(p -value <0.01) and (2) - the other 6 variables of significant correlations(p -value <0.05). Then hierarchical regression was adopted to these 2 groups to analys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multicollinearity(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Additionally to OLS robust and bootstrapping regressions were done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is model specification.

At last a regression model specified by group (1) as independent variables(they are 'community spirit caring for women, the disabled, the poor and the old, ' 'satisfaction of bicycle riding condition' shows that the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substantially strong effect on 'satisfaction of cultural condition.' This finding implies the following understanding; ① urban festivals are regarded as the main of the urban culture as of now and this results from the low level of today's culture, ② culture is telling and hearing stories but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urban culture and community spirit on the weak is negative, which says that the cultural perception among citizen is somewhat selfish and far from the essential understanding of the urban culture.

In spite of restrictive external validity this finding can be used as a direction for promoting culture and a basis for related policy choice in cities.

Keywords

urban culture, urban festival, care for the weak, hierarchical regression

키워드

도시문화, 도시축제, 사회적 약자 배려, 계층 회귀분석

1. 서 론

‘문화의 시대’를 외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지금도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문의 기본을 닦기보다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번영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과 정부를 막론하고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기보다 우선 당장의 과실에 집착한다. 경제성장과 물질적 번영은 정신적 빈곤과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문화적 생명력의 상실을 대가로 한 것이다. 외형적 성장만을 중시하던 시대에는 진정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의 문화 인프라를 외면해 왔다. 문화의 시대라고 하면서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도 시장에 내어 놓고 알아서 생존해나가야 한다는 이중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토양에서 문화를 표방하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급조하는 기념비적, 전시적 공간과 정체불명의 유행 제품 같은 축제는 도리어 반문화(反文化)의 상징이 되고 있다. 문화를 표방하며 문화 천민주의에 함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내면적 가치보다 외면적 가치를, 정신보다 물질을 숭상하고, 생명보다 향락을 더욱 값진 것으로 착각하면서 공동체와 타인을 소홀히 여기는 이기주의에 빠져버리게 된다. 도시인들에게 있어 도시는 단순히 노동과 소비의 장소일 뿐이어서는 안 된다. 경제를 중시하던 시대에는 도시가 기업의 경영 공간으로 형성되어 왔고, 도심이 사무소나 영업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전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도시가 문화적 욕구와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충족시키며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진정한 생활의 본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형적 성장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패한 요인은 그 발전 계획에서부터 문화적 차원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풍요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풍요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신의 내실을 기하고 행동 또한 세련된 생활 속에서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도시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도시의 새로운 경영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감 있는 도시’, ‘여유’와 ‘평온함’ 등과 같은 인간의 감성을 키우는 가치관과 기준을 강조함으로써 근원적인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

문화란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므로 각 문화는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치관, 지식, 신념체계 그리고 생활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의 전통이란 지역의 생활 양식 또는 행동 동기를 지역 주민들이 자각과 긍지를 갖고 전승시켜 가는 것이다. 결국 지역문화 또는 도시문화는 ‘시간과 공간의 구상을 실현시키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발시키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는 당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며, 그 자체가 생활의 중심이 된다. 또한 자신들의 생활을 여과 없이 진솔하게 반영하며, 희로애락과 관련된 삶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농축하고 있어 지역주민 모두가 주체적,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창조해가는 일상의 생활 형태이기도 하다.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던 것이 나중에 교양, 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된 문화는 그 개념이 모호할 정도로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흔히 문화인, 문화민족, 문화생활 등에서처럼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지적수준이나 지성, 교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기업문화, 여행문화, 불교문화 등에서와 같이 어떤 집단 내지 민족이 공유하는 의식 내지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화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문화는 “동 세대 내에 존재하거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민족이나 집단의 사상, 관습, 기술, 예술 등의 총체”이다. Tylor(1958)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및 습관 등을 포함한 복합적 총체로 보고 있으며, 한 인간이나 시대 혹은 집단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임학순, 2003), 지적, 예술적, 정신적 산물로서의 문화(정기문, 1999), 상징체계로서의 문화(김창남, 2003)와 같이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화의 의미는 특정 집단이 공통적 또는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태도, 신앙, 도덕, 습관, 가치관, 풍습 등을 묘사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인류·사회학적 체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단이 구분, 정의될 수 있다. 두 번째 문화의 의미는 기능적 측면이 보다 강조된 것으로서, 인간생활의 지적, 도덕적, 예술적 측면과 관련되어 행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과 그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산출물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는 간단한 기술·직업적 숙련의 습득보다도 오히려 지성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촉진하는 활동과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문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¹⁾을 시도하

고 있는 김동윤(2012 a)의 후속 연구이다. 김동윤(2012 a)에서는 도시문화 또는 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신뢰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도시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연구 경향은 대체적으로 도시경쟁력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을 주민 혹은 자원의 유인력(attractiveness)이라고 정의할 때(김동윤, 2011), 문화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화의 기능, 보다 정확하게는 문화산업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화산업 측면의 편향적 접근이 앞서 지적한 우리 문화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문화와 경제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문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 혹은 인문학적 성찰이 결여된 상태에서 유행처럼 산업적 기능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윤(2012 a)은 도시문화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로서 도시인들의 문화환경 만족은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을 계량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문화의 추상성,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사회적 신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정(斷定)의 오류를 피하고 본질 이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확장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즉 도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수 존재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편적 관점을 유지하고, 다수의 변수를 동시에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시문화 또는 도시인의 문화적 삶의 질에 대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인의 문화환경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2012

1)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측면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하성규 외, 2003). 통합적 접근은 각각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체계적 접근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통합적 접근이라고 할 때 그들 각각의 측면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 각각의 측면은 독립적 관계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규범적 주장으로 한정되기 쉽다. 이보다는 도시를 여러 구성요소들의 일정한 관계 속에 형성되는 전체성으로 이해하고, 그 일정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체계적 접근이 복합적 성격의 도시를 이해하는데 더욱 유효하기 때문이다. 문화를 도시의 구성요소로 바라볼 때, 문화는 어떤 요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과학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할뿐더러 문화의 본질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결여라는 평가와 관련해서도 실익이 있을 것이다(김동윤, 2012 a).

서울서베이」 보고서를 활용한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20,000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서베이는 조사대상에 따라 가구, 가구원, 외국인 및 사업체 조사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구원 조사 결과를 자치구별로 집계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김동윤(2012 a)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즉, 먼저 가구원 조사에 포함된 모든 항목들과 문화환경 만족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상관분석은 두 변수 간 선형관계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칭적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상관분석은 변수 간의 인과성 발견과는 무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상관분석은 보다 정교한 다중회귀분석의 모형 설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해당한다. 다중회귀분석은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두 그룹 변수들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이루어진다.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통하여 종속 변수인 문화환경 만족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 변수를 도출한다. 김동윤(2012 a)과 연구방법에서 근소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회귀분석의 결과로 설정된 모형에 대하여 로버스트(robust) 회귀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회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이들 회귀의 병행적 실시는 소표본(small sample)과 이분산(heteroschedasticity) 등으로 인한 회귀계수 표준오차(standard error)의 확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론적 배경과 접근방법2)

2.1 상관분석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두 변수의 연관도(measure of association)를 파악하는 것이다. 두 변수 x, y의 연관도는 선형관계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관계수(Pearson's r)로 표현된다.

$$r = \frac{Cov(x, y)}{SD_x \cdot SD_y} = \frac{\sum(x_i - \bar{x})(y_i - \bar{y}) / (n - 1)}{\sqrt{\frac{\sum(x_i - \bar{x})^2}{(n - 1)}} \sqrt{\frac{\sum(y_i - \bar{y})^2}{(n - 1)}}}$$

위 식에서 $Cov(x, y)$ 는 공분산을 나타내며 $E[(x - E(x))(y - E(y))]$ 으로 정의된다. SD_x, SD_y 는 각각 x, y의 표준편차이다.

2) 김동윤(2012 a: 61-62)의 해당 부분 인용 및 일부 첨가.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때 부호가 상관관계의 방향(양 또는 음)을 의미하고,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더 강한 관계를 나타낸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연관도를 대칭적으로 파악한다. 즉 어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한 변수가 변동할 때 다른 변수가 변동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회귀분석에 의해 밝힐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수 간의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 3 요인을 최대한 통제해야 하는데 통제할 변수는 종속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표본자료로부터 계산된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significance test)은 다음 검정통계량(test statistic)에 의한다. 유의성 검정에 있어서 귀무가설(null hypothesis, H_0)은 '모집단 상관계수 $\rho = 0$ '이다.

$$t = \frac{r\sqrt{n-2}}{\sqrt{1-r^2}} \quad (d.f. = n-2)$$

2.2 다중회귀분석

어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유효한 방법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이다. 다중회귀분석은 아래 식과 같이 다수의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것이다.

$$y_i = \beta_0 + \beta_1x_{1i} + \beta_2x_{2i} + \dots + \beta_kx_{ki} + u_i$$

다중회귀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이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① 모집단에서 β_j 는 선형성(linearity)을 갖는다. 즉 독립변수의 모든 구간에서 그 변화 효과가 같다.
- ② 분석대상 표본은 무작위추출에 의한다.
- ③ 어떤 독립변수도 상수(常數)가 아니며, 독립변수들 간에 정확한 선형관계(exact linear relationship) 또는 완전 공선성(perfect collinearity)이 없다.
- ④ 오차항 u_i 의 x 조건부 기댓값은 0이다.

$$E(u_i|x_1, x_2, \dots) = 0$$

- ⑤ 오차항 u_i 의 x 조건부 분산은 같다.

$$Var(u_i|x_1, x_2, \dots) = \sigma^2$$

회귀식에서 회귀계수 β_j 는 x_j 변수에 대한 편미분계수에 해당하므로 여타의 독립변수들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여타 독립변수들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할 때, 독립변수 x_j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과관계(ceteris paribus effect)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독립변수들을 회귀식에 완전히 포함시킬 수 있다면 관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들을 독립변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상관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은 오차항(error term) u_i 에 남아있게 될 것이며 가정조건 ④를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hat{\beta}_j$ 의 추정량 $\hat{\beta}_j$ 에는 편의(bias)가 존재하게 된다.

한편 추정량 $\hat{\beta}_j$ 의 분산(variance)은 다음 식과 같다.

$$Var(\hat{\beta}_j) = \frac{\sigma^2}{SST_j(1-R_j^2)}$$

식에서 σ 은 회귀오차, SST_j 는 x_j 의 총변동제곱합($\sum(x_i - \bar{x})^2$, R_j^2 는 x_j 를 종속변수로 하고 여타 모든 독립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에서의 결정계수를 의미한다. 이 식을 검토하면, 독립변수의 개수를 늘릴수록 R_j^2 이 증가하므로 결과적으로 $\hat{\beta}_j$ 의 분산이 커진다. 이것은 그만큼 $\hat{\beta}_j$ 의 추정이 부정확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추정에 편의가 생기는 것과 분산이 커지는 것의 상충관계(trade-off)에서 적절한 모형설정이 요구된다. 위 식에서 $\frac{1}{1-R_j^2}$ 부분을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라고 하는데, VIF가 클수록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중공선성 문제 여부의 절대적 판단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해당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문화환경 만족도'와 매우 유의한(very significant) 상관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과 유의한(significant) 상관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두 그룹(block 1, block 2)으로 나누고,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여 적정 회귀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정규분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규분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 n 이 매우 클 때 성립하는 점근성(asymptotic properties)³⁾을 이용할 수 있지만 표본크기가 작은 경

3) 점근성에는 표본 추정량(estimate)의 표준오차 크기에

우에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정규분포성을 왜도-첨도검정(skewness-kurtosis test) 방법에 의하여 판정한다.

로버스트(robust) 회귀는 주로 이분산(heteroschedasticity)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며 아래 회귀계수의 분산식 중 σ_i^2 를 \hat{u}_i^2 으로 대체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Var(\hat{\beta}_j) = \frac{\sum (x_i - \bar{x}) \sigma_i^2}{SST_x^2}$$

표본크기가 작은 경우에 점근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이다. 표본크기가 n 일 때, 그 표본으로부터 복원추출로 n 크기의 표본을 추출한다. 이를 부트스트랩 표본이라 하며, 예를 들어 표본추출을 1,000번 반복하여 각 부트스트랩 표본에 대한 회귀계수들의 표준편차를 구한다. 이 표준편차가 OLS(ordinary least squares)에서의 표준오차를 대신하는 것이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별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화 회귀계수를 동시에 도출하기로 한다. 다음 식으로 표현되는 표준화 회귀에서 표준화 계수 또는 베타 계수는 단위해석이 난해한 경우에도 유용하지만 독립변수의 설명기여도를 비교할 때에 특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김동윤, 2012 b).

$$\frac{y_i - \bar{y}}{sd(y)} = \frac{sd(x_1)}{sd(y)} \hat{\beta}_1 \frac{x_{1i} - \bar{x}_1}{sd(x_1)} + \dots + \frac{u_i}{sd(y)}$$

3. 단계적 분석 결과

3.1 분석대상변수

「2012서울서베이」에 근거한 분석대상 변수 및 그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v_**의 내용은 독립변수로 검토하는 변수들이며 코딩(coding)을 위한 표기이다.

표 1. 분석대상변수

변수		척도 단위
종속 변수	문화 환경 만족도	10점

관한 평균의 법칙과 분포 모양에 관한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가 있는데, 중심극한정리는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n \rightarrow \infty$ 일 때 표본 추정량은 정규분포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종속 관련 변수	도시축제 관심도	10점
	도시축제 참여율	%
	도시축제 참여 만족도	10점
	문화활동 방문횟수(年)	회
v_01	녹지·숲 만족도	%
v_02	통근·통학시간	분
v_03	거주 지역 보행환경 만족도	10점
v_04	도심 보행환경 만족도	10점
v_05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10점
v_06	대중교통만족도	10점
v_07	평생교육 경험률	%
v_08	도시위험도_자연재해	10점
v_09	도시위험도_밤거리	10점
v_10	도시위험도_범죄발생	10점
v_11	도시위험도_건축물	10점
v_12	사회적 차별_소득	10점
v_13	사회적 차별_교육	10점
v_14	사회적 차별_직업	10점
v_15	사회적 차별_외모	10점
v_16	사회적 차별_국적	10점
v_17	사회적 차별_성별	10점
v_18	사회적 차별_나이	10점
v_19	사회적 차별_출신지역	10점
v_20	사회적 차별_종교	10점
v_21	단체활동 참여율	%
v_22	자원봉사 참여율	%
v_23	기부율	%
v_24	사회적 신뢰_가족	10점
v_25	사회적 신뢰_이웃	10점
v_26	사회적 신뢰_공공기관	10점
v_27	사회적 신뢰_처음 만난 사람	10점
v_28	사회적 신뢰_외국인	10점
v_29	마을공동체사업_참여의사	10점
v_30	마을공동체사업_필요성	10점
v_31	주관적 행복_건강상태	10점
v_32	주관적 행복_가정생활	10점
v_33	주관적 행복_친지·친구 관계	10점
v_34	주관적 행복_사회생활	10점
v_35	주관적 행복_재정상태	10점
v_36	정치경제사회적 계층 인식(中上이상)	%
v_37	계층이동가능성	10점
v_38	공동체의식_약자 배려	10점
v_39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
v_40	10년후 서울 거주 의향	10점
v_41	현재 직업 만족도	10점

표 2는 종속변수(dep)와 그 관련 변수들(dep_1, ...)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는 첫째, 도시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문화환경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과 둘째, 도시축제 관심도가 높을수록 축제 참여도도 높다는 점, 셋째 도시축제 참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화환경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는 도시축제가 문화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과 도시축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전시

회, 박물관, 음악회, 전통예술공연, 연극 등 문화활동 방문과 문화환경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 종속_관련변수 간 상관분석

	dep	dep_1	dep_2	dep_3	dep_4
dep	1.000				
dep_1	-0.423 0.035	1.000			
dep_2	-0.151 0.471	0.624 0.001	1.000		
dep_3	0.581 0.002	-0.113 0.590	-0.087 0.678	1.000	
dep_4	-0.070 0.7395	0.253 0.222	0.100 0.634	-0.089 0.674	1.000

3.2 상관분석 결과

문화환경만족도와 41개의 변수에 대한 일대일 단순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 표는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하여 관측된 유의수준 (observed significance level, p-value)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 α)인 5%와 보다 엄정한 유의수준인 1%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p-value를 올림차순으로 정렬하였다.

표 3. 종속_독립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Pearson's r	p-value
v_38	-0.4389	0.0282
v_05	0.4368	0.0290
v_30	-0.3874	0.0557
v_28	0.3788	0.0624
v_29	-0.3780	0.0624
v_18	-0.3659	0.0720
v_03	-0.3377	0.0987
v_01	0.3368	0.0997
v_27	0.3333	0.1035
v_37	-0.3238	0.1143
v_14	0.3208	0.1179
v_31	-0.3153	0.1248
v_34	-0.2871	0.1641
v_40	-0.2741	0.1849
v_09	-0.2696	0.1925
v_07	0.2670	0.1969
v_06	-0.2617	0.2064
v_02	-0.2587	0.2118
v_33	-0.2528	0.2227
v_10	-0.2508	0.2266
v_32	-0.2499	0.2284
v_36	-0.2391	0.2497
v_19	0.2177	0.2959
v_25	0.1764	0.3989
v_12	-0.1456	0.4873

v_17	-0.1307	0.5335
v_16	0.1169	0.5778
v_23	-0.1080	0.6074
v_15	-0.1065	0.6124
v_04	-0.1032	0.6234
v_35	-0.0992	0.6370
v_41	-0.0978	0.6419
v_11	-0.0795	0.7057
v_20	0.0787	0.7085
v_21	0.0489	0.8164
v_24	-0.0309	0.8835
v_08	0.0261	0.9016
v_26	0.0182	0.9314
v_39	-0.1048	0.9442
v_22	0.0021	0.9919
v_13	0.0009	0.9967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공동체 의식(여성, 장애인, 빈민 및 노인)에 대한 배려 및 어울림)과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의 두 가지 변수와 문화환경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② 마을공동체사업의 필요성과 참여의사,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 나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 지역 보행환경 만족도 및 녹지·숲 만족도의 여섯 가지 변수와 문화환경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3.3 다중회귀분석 결과

왜도-첨도검정 방법에 의하여 종속변수인 문화환경 만족도의 정규분포성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이 검정에 있어서 귀무가설은 ‘해당 변수가 정규분포한다’는 것이다. 표의 결과에 의하면, 왜도 및 첨도 각각의 측면에서 귀무가설을 기각(reject)할 수 없으며(p-value가 각각 0.2630 및 0.4749), 종합적 관점에서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p-value 0.3800). 그림 1은 종속변수의 경험적 히스토그램과 정규곡선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4. 왜도-첨도 검정(s-k tests for normality)

변수	Pr skewness	Pr kurtosis	joint	
			adj chi2(2)	Pr>chi 2
문화환경 만족도	0.2630	0.4749	1.94	0.3800

따라서 종속변수는 정규분포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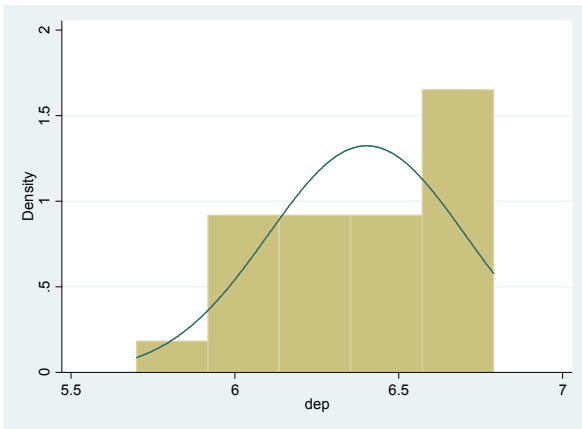


그림 1. 종속변수 분포-정규곡선 비교

OLS의 시행은 절차의 편의상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 및 표 6과 같다. 즉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관변수들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블록-1(block 1)에 대한 회귀분석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변수들을 포함하는 블록-2(block 2)를 독립변수로 추가한 회귀분석을 2차적으로 시행하였다.

표 5. 1차 회귀분석(독립변수: block 1)

Source	SS	df	MS	obs = 25	
Model	0.755	2	0.377	F(2,22) = 5.84	
Residual	1.422	22	0.065	Prob>F = 0.0093	
Total	2.177	24	0.091	R-squared = 0.3466	
				Adj R-squared = 0.2872	
				Root MSE = 0.25427	
culture	Coef.	Std. Err.	t	P> t	Beta
v_38	-0.548	0.239	-2.29	0.032	-0.3970
v_05	0.274	0.120	2.28	0.033	0.3946
_cons	7.731	1.633	4.74	0.000	-

표 6. 2차 회귀분석(독립변수: block 1 + block 2)

Source	SS	df	MS	obs = 25	
Model	1.186	8	0.148	F(8,16) = 2.39	
Residual	0.991	16	0.062	Prob>F = 0.0654	
Total	2.177	24	0.091	R-squared = 0.5448	
				Adj R-squared = 0.3172	
				Root MSE = 0.2489	
culture	Coef.	Std. Err.	t	P> t	Beta
v_38	-0.071	0.399	-0.18	0.861	-0.052
v_05	0.159	0.141	1.13	0.276	0.229
v_30	0.045	0.206	0.22	0.830	0.077

v_28	0.175	0.161	1.09	0.293	0.351
v_29	-0.076	0.174	-0.44	0.669	-0.143
v_18	-0.021	0.021	-1.02	0.322	-0.214
v_03	-0.278	0.221	-1.26	0.225	-0.308
v_01	0.129	0.095	1.36	0.192	0.245
_cons	6.479	2.209	2.93	0.010	-

표 7. 회귀계층별 효과

Block	F	Block df	Residual df	Pr>F	R ²	Change in R ²
1	5.84	2	22	0.009	0.347	
2	1.16	6	16	0.374	0.545	0.198

계층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면 블록-2, 즉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여섯 변수가 집합적으로(jointly) 유의하지 않다(p-value 0.374). 따라서 블록-1, 즉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만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p-value 0.01 미만으로 매우 유의).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은 두 계층에 대한 VIF 분석 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표 8. 회귀계층별 VIF

variable	VIF	
	Block 1 + Block2	Block 1
v_38	2.94	1.01
v_05	1.44	1.01
v_30	4.42	-
v_28	3.67	-
v_29	3.78	-
v_18	1.55	-
v_03	2.10	-
v_01	1.14	-
Mean VIF	2.63	1.01

작은 표본크기 및 이분산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로버스트 회귀 및 부트스트랩 회귀를 실시한 결과는 표 9 및 표 10과 같다.

표 9. 로버스트(robust) 회귀분석 결과

F(2,22) = 6.79 Prob>F = 0.0051					
R ² = 0.3466					
Root MSE = 0.2543					
독립변수	회귀계수	robust 표준오차	t	P> t	Beta
v_35	-0.548	0.214	-2.56	0.018	-0.397
v_05	0.274	0.109	2.51	0.020	0.395
상수항	7.731	1.427	5.42	0.000	-

표 10. 부트스트랩(bootstrap) 회귀분석 결과

Replications = 1000				
Wald chi2(2) = 11.82 Prob>chi2 = 0.0027				
R ² = 0.3466				
Root MSE = 0.2543				
독립변수	회귀계수	bootstrap 표준오차	z	P> t
v_35	-0.548	0.247	-2.22	0.026
v_05	0.274	0.116	2.35	0.019
상수항	7.731	1.658	4.66	0.000

위 표는 로버스트 회귀를 통하여 OLS 예측의 정확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부트스트랩 회귀에서는 개선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종합적으로 OLS 회귀의 적절성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계층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문화적 환경 만족도에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단순하게는 자전거 이용환경과 문화적 환경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전거 이용은 건강, 여가 활동으로서 문화 활동의 한 부분이며, 그것을 중시하는 집단적 가치 판단이 문화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환경이 좋다는 것은 시각적, 공간적 쾌적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도시문화의 정신적 가치 측면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 주목하는 것은 문화적 환경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의 관계이다. 문화가 사회적 또는 집단적 가치의 차원이므로 공동체 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이때의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약자, 즉 여성, 장애인, 가난한 사람 및 노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배려하는 정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에 착안하면 도시문화의 본질이 가까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관계가 부(負, -)의 관계라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도봉구, 강북구 등)에서는 문화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결 론

김동윤(2012, c)은 도시 발전의 모형으로 자족성

(self-sufficiency), 혁신성(innovativenes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정체성(identity)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요소가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며, 경쟁력이 물질적, 양적 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자원을 끌어들이 수 있는 흡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때, 결국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이들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 중에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다. 정체성이 없는 도시를 비교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도시의 정체성은 그 도시에 존재하는 집단적 가치의 표현이며 그 중요한 부분을 문화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지방자치제도가 함께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은 문화의 가치를 높이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도시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품 없는 전시관, 관람객 없는 공연장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의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약 1,000개에 달하는 도시축제는 정신적 가치 및 콘텐츠 부족과 동상유질(同象類質)의 진부함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로 인한 전시성 치적 쌓기 유희와 권력화된 시민단체의 이익 추구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문화 천민주의라 평가 절하한다 해도 변명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 물질적 성장의 시대를 넘어 정신적 가치, 삶의 질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그 중심에 문화가 위치하는 것이다. 문화를 표방하면서 반문화를 양산하는 현실에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문화의 본질에 접근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동윤(2012 a)에 이어 도시문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후 지속될 일련의 연구들을 집적하여 문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문화의 개념을 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로 정의하고, 문화환경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즉 인과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의 도출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와 상관을 가지고 있는 여타 변수를 모두 독립변수로서 통제하여 관심 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성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와 같은 다중회귀분석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하면 종속변수인 문화환경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들을 회귀식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과다는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한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 결과는 회귀계수의 분산 확대, 즉 부정확성이다. 따라서 제 3 요인의 통제라는 목적과 회귀계수 추정의 부정확성이라는 상충적 관계에서 적정 회귀모형의 설정이 핵심 과제가 된다. 적정 회귀모형 설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의 사전적 절차로서 상관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변수 그룹을 둘로 구분하였다. 이후 다중회귀분석은 두 그룹에 대한 계층적 회귀분석에 의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 결정계수의 증분(増分), 회귀계수의 유의성 및 다중공선성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는 한 개 그룹의 변수들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회귀모형은 두 개의 독립변수, 즉 공동체 의식과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이다. 이러한 모형은 로버스트 회귀 및 부트스트래핑 회귀를 통하여서도 그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도시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화환경에 있어서 도시축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그만큼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화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적 가치’라고 정의하고, 정적(靜的) 현상이 아닌 지속적 수준 향상이라는 동적(動的) 과정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 사회의 문화가 편향적이며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전시관, 미술관, 연극·영화관, 스포츠 경기 관람, 전통예술 관람 등의 수준과 문화환경 만족도가 무관(無關)하다는 통계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적, 외적 성장에만 집중해 온 과정에서 정신적 가치 추구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자위할 수도 있겠지만, 축제공화국 조성에 책임 있는 다수의 공공기관 및 단체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및 노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과 도시문화가 부(負)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의 결과와 관련시켜 분석하면,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배려하는 지역은 도시축제가 부족하거나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 반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

문화의 격차 문제뿐 아니라 문화 향유의 이기성(利己性)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내포하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함이다. 일차적으로는 야생 짐승이나 적으로부터 생존하여야 하고,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였지만, 정신적으로 살아남기 위함도 중요한 동기가 된다. 즉 혼자서는 외롭다는 점이다.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이야기의 중심 또는 표현이 문화인 것이다. 공동체, 특히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문화의 본질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반문화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문화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노력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은 김동윤(2012 a)와 마찬가지로, 「2012서울서베이」의 표본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의 일반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모형은 특정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표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형이 실체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문화환경 만족과 공동체 의식 및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의 관계가 모집단, 적어도 우리나라 도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용이하지 않다. 즉 외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문화의 경제적 이해보다 본질적 이해를 위한 일련의 연구과정의 일환으로서 개념 간의 인과성을 탐색하고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강형기. 「향부문」. 서울: 비봉출판사. 2001.
2. 김동윤. “도시의 입지결정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지」 11(2). pp. 51-60.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2011.
3. 김동윤 a. “도시인의 문화환경 만족과 사회적 신뢰의 인과성.”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지」 12(4). pp. 49-67.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2012.
4. 김동윤 b. “「2011 서울서베이」를 이용한 ‘삶의 질’ 관련 변수의 유의성 분석.”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지」 12(3). pp. 39-47.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2012.

5. 김동윤 c. “신도시 경쟁력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지」 12(2). pp. 39-51.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2012.
6.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과주: 한올아카데미. 200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적 삶과 도시문화」. 서울: 메이데이. 2009.
7. 서울특별시. 「2012 서울서베이 보고서」. 2013.
8. 이군희.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법문사. 2009.
9.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서울: 진한도서. 2003.
10. 정기문. “문화산업의 논의와 전개.” 「문화정책논총」. 제11권, pp.1-17. 1999.
11. 하성규·김태섭.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 서울: 박영사. pp. 129-150. 2003.
12. Acock, A. C.. A Gentle Introduction to Stata. College Station, TX: A Stata Press. 2010.
13. Mumford, L.. The Culture of Cities, NY: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38.
14. Tylor, Edward B.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Gloucester, Mass: Peter Smith. 1958.
15. Wooldridge, J. M..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South-Western College Pub. 2008.
16. Throsby, D.. 「문화경제학」. 성제환 역. 과주: 한올아카데미. 2004.

논문접수일 (2013. 11. 11)

심사완료일 (2013. 11. 23)

게재확정일 (2013. 11. 26)